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4. 1. 26.(금) 07:00 ~ 2024. 1. 28.(일) 22:00
- 상담건수¹⁾: 1,461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골든 걸스」 [최종회]

-방송일시 : 2024. 1. 26.(금) 2TV (22:00-23:20)

그동안 많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날을 끝으로 종영되어 아쉽다. 방송은 끝이 났지만 전국투어 콘서트를 한다니 기대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만큼, 종영과 별개로 방송에서 콘서트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출연자 섭외 제언(5명)

-프로그램명 : 「전국노래자랑」

-방송일시 : 2024. 1. 28.(일) 1TV (12:10-13:30)

이날 가수 박상철 씨가 출연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보기 불편하다. 박상철 씨가 아니어도 출연할 가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계속 섭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공영방송인 만큼 사생활에 논란이 있는 출연자는 섭외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8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청원 답변 : 고려거란전쟁의 완성도를 위한 청원입니다.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46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719	111	-	-	631	1,46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720	458	22	-	-	261	1,46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80	1,181	-	1,46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48	3	85	225	1,461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소설」 - 후속 방송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한 바퀴」 - 방송 제언 ○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진행자 호평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노래자랑」 - 출연자 섭외 제언 ○ 「골든 걸스」 - 방송 호평 ○ 「슈퍼맨이 돌아왔다」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종찬의 시사본부」 - 방송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황태청국장」 연락처 문의 92건 ○ 「전국노래자랑」 - 「진행자 제언」 28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25건 ○ 「2TV 생생정보」 - 「답 한 마리」 연락처 문의 22건 ○ 「가요무대」 - 「편성 시간」 문의 20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칭」 문의 3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30건 ○ 「수신료」 문의 8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7건 ○ 「전화교환」 문의 8건 ○ 「견학」 문의 2건 외 10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225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TV소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 3. 2.~2018. 8. 31. (월-금) 2TV 방송. - 「파도야 파도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TV소설」이 부활했으면 한다. 주로 시대극을 그렸고,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담아 재미있게 시청했다. 봄 개편을 앞두고 후속 방송 제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p**</p>
[시사·교양]	
방송 제언	<p>○ 「동네 한 바퀴」 ‘전남 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27.(토) 1TV (19:10-20:05) - 방송에 건의하고 싶다.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동네의 역사나 경치 등을 보여줘야 하는데, 먹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마치 식객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굳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주인의 인생 이야기를 길게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궁금해서 시청하는 게 아니다. 식당을 홍보해주는 느낌마저 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진행자 호평	<p>○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27.(토) 1TV (21:40-22:25) - KBS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청자이다. 그중에서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을 가장 많이 시청한다. 항상 변함없이 좋은 진행을 선보이는 윤수영 아나운서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해당 방송에서 오래도록 보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일요진단 라이브」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28.(일) 1TV (08:00-09:00) - 이날 방송을 시청하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로 정치인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유익하다. 이날처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출연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이날 출연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들이 참 좋았다.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연 예 · 오 략]	
출연자 섭외 제언	<p>○ 「전국노래자랑」 (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28.(일) 1TV (12:10-13:30) - 이날 가수 박상철 씨가 출연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보기 불편하다. 박상철 씨가 아니라도 출연할 가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계속 섭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공영방송인 만큼 사생활에 논란이 있는 출연자는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골든 걸스」 [최종회]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26.(금) 2TV (22:00-23:20) - 그동안 많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날을 끝으로 종영되어 아쉽다. 방송은 끝이 났지만 전국투어 콘서트를 한다니 기대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 만큼, 종영과 별개로 방송에서 콘서트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슈퍼맨이 돌아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27.(토) 2TV (09:00-10:15) (재) - 아이들을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즐겨 시청한다. 특히 은우·정우 형제의 열렬한 팬이다. 시청자 입장에서 큰 아이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더 눈길이 가고 예쁘다. 은우·정우 형제와 준범이의 예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라디오]	
방송 호평	<p>○ 「배종찬의 시사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26.(금) 1R (12:20-13:58) - 이날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다. 그동안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니 서운했다. 본인이 좋아했던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폐지가 되어 속상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